

**2018학년도 대수능 대비**

**다독다감**

**1월호**

**산문문학 추가자료**

**새로배움X천하포문 국어교육 연구소**



## <역마 추가자료>

### ★ 시나리오 역마 줄거리

역마살을 타고 난 주인공 성기는 결혼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론가 떠돌아다니고 싶어한다. 어머니 옥화는 성기의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 열 살 때부터 절에 보내어 중노릇을 시키거나 색시들을 두고 접근하게 하기도 하지만 성기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다. 어느 날 체장수 영감이 딸 계연을 데리고 나타난다. 성기가 그녀를 좋아하는 눈치를 보이자 옥화는 성기와 계연을 짝지워 주고자 한다. 그러나 옥화는 계연의 왼쪽 귓바퀴 위에서 자기와 똑같은 사마귀를 발견하고 자신의 동생이 아닐까 의심하던 중 장삿길에서 돌아와 들려 주는 체장수 영감의 36년 전 이야기와 자기 어머니의 36년 전 이야기가 일치하는 것에 놀란다. 옥화는 명도를 통해 계연이 자기의 동생임을 확인하고 계연을 떠나 보낸다. 이 일로 인해 성기는 자리에 눕고 만다. 그러던 어느 날, 옥화는 마침내 성기에게 계연이 자기의 동생임을 알려 준다. 옥화의 이야기를 들은 성기는 기력을 되찾아 운명에 순응하며 옛편 하나를 구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정처 없이 길을 떠난다.

## <사씨남정기 추가자료 - 1>

### ★ 사씨남정기 줄거리

유연수(유 한림)는 중국 명나라 선비 유현(유 소사)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어머니가 일찍 죽어 고모인 두씨 부인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다. 영특한 유연수는 15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어질고 착한 사정옥(사씨)과 혼인을 한다, 유연수와 사 씨 부부는 사이가 좋았으나 혼인한 지 9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사 씨는 유연수에게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줄 첩을 들일 것을 권하여 교채란(교씨)을 첩으로 맞이한다. 교씨는 걸으로는 사 씨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다. 교씨는 아들을 낳자 정실부인이 되고 싶어 사 씨를 모함한다. 그러던 중 사 씨 역시 아들을 낳자 위기감을 느낀 교 씨는 동청이란 자와 손을 잡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후 그 죄를 사 씨에게 덮어 씌운다. 결국 사 씨는 집에서 쫓겨나고 교 씨는 정실부인이 된다. 그러나 교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청과 함께 유연수까지 모함하여 유배가게 한다. 시간이 지나 유연수는 죄가 없음이 인정되어 유배에서 풀려나고 모든 사정을 알게 되고 사 씨를 다시 찾아 아내로 삼고 교 씨를 찾아 처벌한 후 사 씨와 행복하게 산다.

### ★ 지문 해설

**[앞부분의 줄거리]** 사 씨는 유한림과 혼인하여 안정된 결혼생활을 하나 첩 교 씨의 음모로 가문에서 쫓겨난다. 사 씨는 온갖 고난을 겪다 강에 뛰어들려 하지만 여종(차환)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사 씨는 통곡하다 잠들고 꿈속에서 낭랑을 만난다.

낭랑은 시비를 시켜 사 씨에게 차를 올리게 했다. 차를 마시고 사 씨에게 말했다.

“부인이 이곳에 온 지 오래되었으니 시비들이 반드시 의심할 거예요. 빨리 돌아가세요.”

“낭랑께서 부르시어 첩이 짧은 목숨을 겨우 이었습니다만, 실로 의탁할 곳이 없으니 돌아가 봐야 응당 물에 뛰어든 뿐입니다. 낭랑께서 첩을 비루하게 여기시지 않아 시비의 말석 옆자리라도 머물게 허락하시면 이곳에서 낭랑을 모시며 지내고 싶습니다.”

낭랑이 웃으며 말했다.

“부인은 다른 날 마땅히 이곳으로 와서 조대가\*, 맹광\*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거예요. 지금은 기한이 차지 않았으니 머물고자 해도 어찌 가능하겠어요? 남해도인이 그대와 깊은 인연이 있으니 잠시 의탁하도록 하세요. 이 또한 하늘의 뜻이지요.”

“첩이 듣기에 남해는 세상의 한구석으로 길이 멀고 험하다 했습니다. 첩에게는 수레도 없고 양식도 없으니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곧이어 반드시 인도할 사람이 생길 터이니 심려치 마세요.”

이어서 동쪽 벽 자리의, 얼굴이 매우 아름답고 두 눈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바로 그대가 말한 위나라의 장강\*이랍니다.”

또 용모가 밝은 꽃과 같고 얼굴이 수려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한나라의 반첩여\*예요.”

또 서쪽 벽 자리의, 거동이 한아하면서 얼굴이 반첩여 같은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후한의 조대가예요.”

또 얼굴이 살지고 피부가 조금 검은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양처사의 아내인 맹 씨예요.”

사 씨가 다시 일어나 인사를 드리고 말했다.

“여러 부인께서는 첩이 평생 모시고 심부름이라도 하길 바랐던 분들이옵니다. 오늘 직접 얼굴을 뵈 수 있을 거라고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네 부인은 각각 눈빛으로 마음을 보냈다.

사 씨가 절하고 물러나오는데, 낭랑이 말했다.

“힘쓰고 힘써, 선을 행하세요. 오십 년 뒤에 마땅히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여동에게 명해 사 씨를 모시도록 했다. 사 씨가 대전에서 내려 오자마자 대전에 열두 개의 주렴이 드리워졌고,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다.

→ 꿈속에서 낭랑과 부인의 덕을 다 한 여인들을 만나고 지상계로 돌아간다.

사 씨는 마음이 놀라 몸이 움찔했다. 유모와 차환은 사 씨가 소생한 것을 알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사 씨가 일어나 앉으니 날은 이미 저물었다.

사 씨는 정신이 어질어질하여 오랜 뒤에야 비로소 안정되었다. 차의 향은 여전히 입안에 남아 있었고 낭랑의 말도 귀에 생생했다. 유모에게 말했다.

“내가 조금 전에 어디를 다녀왔는가?”

“부인께서 한동안 숨이 막힌 듯하더니 다시 깨어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혼백이 어디라도 다녀오셨나요?”

사 씨가 이어 꿈속에서 낭랑을 만나 서로 문답한 말을 전하고, 후원의 대숲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분명히 푸른 옷의 여동을 따라서 저 길로 갔네. 자네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따라오게.”

마침내 작은 길을 따라 대숲 밖으로 가니 과연 묘당 한 채가 있었다. 현판에 ‘황릉묘’라 써 있으니, 정말로 아황과 여영의 묘당이였다. 묘당의 모습은 꿈속에서 본 것과 다름없었으나 단청은 떨어지고 전각은 황량했다. 묘당의 문으로 들어가 대전 위까지 올라갔다. 흙으로 빛은 두비(妃)의 소상(塑像)이 엄연히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사 씨가 향을 사르고 공손히 아꼈다.

“천첩이 낭랑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뒷날 하늘에서 뵈더라도 마땅히 큰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물러나 서쪽 행랑에 앉았다. 굶주림이 자못 심하여 차환에게 묘당을 지키는 집에서 음식을 얻어오게 했다. 세 사람이 음식을 나눠 요기하고 서로 말했다.

“묘당 근처에 의지할 만한 곳이 없으니 신령이 우리를 희롱했도다.”

→ 꿈에서 깬 사 씨가 한 행동들

그 무렵 해가 서산에 지고 달빛이 어둑했다. 갑자기 두 사람이 묘당의 문으로 들어왔다. 한동안 사 씨 일행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사람이 아닐까?”

사 씨가 나아가 바라보니 한 명은 여승이요, 다른 한 명은 여동이였다.

두 사람이 말했다.

“낭자께서는 어려움을 만나 강물에 뛰어들려 하지 않았나요?”

세 사람이 놀라며 말했다.

“스님이 어찌 그것을 아시나요?”

여승이 놀라, 예를 올리며 말했다.

“저희는 동정호의 군산에 있습니다. 방금 비몽사몽간에 백의관음께서 말하기를 ‘어진 여인이 어려움을 만나 물에 뛰어들려 하니 빨리 황릉묘에 가서 구하라’ 하여 배를 저어 왔더니 과연 낭자를 여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정말 신이하군요.”

사 씨가 말했다.

“우리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구해주시니, 매우 고마워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을 따라가면 혹 암자에 폐를 끼칠까 걱정입니다.”

“출가한 사람은 자비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게다가 보살의 명까지 받았습시다. 낭자께서는 염려치 마십시오.”

모두가 서로를 부축해 언덕을 내려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갔다. 갑자기 한 줄기 순풍이 황릉묘로부터 불어와 순식간에 군산에 도착했다. 군산은 그 이름처럼 동정호 칠백 리 가운데 홀로 우뚝했다. 사방이 모두 물이고 기이한 바위들이 모여있으며, 대숲은 뻗뻗하고 솔숲은 무성하여 예로부터 사람의 발자취가 닿지 않는 곳이었다.

→ 우연히 승려를 만난 사 씨 일행이 기이한 일을 겪고 군산으로 떠난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소리의 빛 추가 자료>

### ★ 이청준 소리의 빛 줄거리( '남도 사람 '의 일부)

이청준의 장편소설 「남도 사랑」의 두 주인공(의붓남매)이 전라도 장흥 땅 산골 주막집에서 우연히 상봉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 주막집 주방에서 일하며 문혀 살아가는 장님 여동생을 찾아 떠돌다 그곳에 나타난 오라비는 그녀에게 소리를 청한 다음 자신은 북장단을 들고 밤새도록 소리판을 벌인다. 그리고 소리가 끝난 후 한방에 나란히 잠자리를 들었다가 의붓오라비는 아무 말도 없이 다시 떠난다. 그리고 천씨 사내(주막주인)와 의붓여동생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서로가 의붓남매임을 소리와 북을 통해 알 수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의 한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말없이 헤어졌음을 얘기한다. 그리고 여인도 어디론가 떠날 것을 암시하며 끝난다.

### ★ 지문 해설

**[앞부분의 줄거리]** 늦가을의 어느 날 저녁 무렵, 천 씨의 주막에 한 사내가 찾아온다. 사내는 주막집 눈 먼 여자에게 소리를 해달라고 한다.

소리가 마을로 들어서던 그 한여름이 지나가고 해가 훌쩍 뒤바뀌고 난 이듬해 이른 여름의 어느 날 밤, 소년의 어머니는 땅덩이가 꺼져 내려앉는 듯한 길고도 무서운 북통 끝에 흡사 핏속에서 쏟아내듯 작은 살덩이 계집아이 형상 하나를 낳아놓고는 그날 새벽으로 그만 영영 눈을 감아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는 다음 날 아침에야 비로소 소리의 사내가 그 후줄근한 모습을 드러내며 소년의 집 사립문을 들어서던 것이었다.

→ 사내의 과거 회상장면: 소년(사내)의 아버지의 등장과 어머니의 죽음

“일이 그렇게 되고 보니 그 소리를 하던 남자, 그러니까 내겐 아마 의붓아버지가 되었을 뻔한 그 사내는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살아가는 수가 없게 됐제. 그래서 끝내는 애 어미되는 사람의 무덤을 만든 뒤에 그 길로 곧 핏덩이 싸들고 마을을 떠나고 말았대네!”

사내는 이제 남의 얘기라도 하듯이 담담한 얼굴이 되어 이야기를 끝맺어 가고 있었다.

→ 현재, 사내는 소녀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은 아직도 그때의 그 사내의 얼굴이 소리의 진짜 얼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소년에겐 여전히 그 뜨거운 햇덩이가 소리의 진짜 얼굴로 남아 있었다. 나이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달라져버린 소리의 사내가 핏덩이 같은 갓난애와 소년을 데리고 이 고을 저 고을로 소리를 하며 밥 구걸을 다니고 있었을 때도, 소리의 진짜 얼굴은 언제나 그 뜨겁게 이글거리는 햇덩이 쪽이었다.

괴롭고 고통스런 얼굴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심판인지 사내는 그 고통스런 소리의 얼굴을 버리고는 살 수가 없었다. 머리 위에 햇덩이가 뜨겁게 불타고 있지 않으면 그의 육신과 영혼이 속절없이 맥을 놓고 늘어졌다. 그는 그의 햇덩이를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소리를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날 이때까지 반생을 지내온 숙명의 태양이요, 소리의 얼굴이었다.

→ 과거, 소년(사내)은 아버지의 소리에서 괴로운 햇덩이가 느껴졌다.

“하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대개 짐작이 가겠네마는, 어쨌거나 나는 그런저런 내력으로 이 나이 마흔이 넘어서도 그 누추한 여릴 적 기억을 버리지 못해 이런 청승맞은 소리 비렁뱅이질을 계속하고 다니는 꼴이라네. 소리를 들으면 어렸을 적에 그 발두렁가에 누워 보던 바다비늘이 아슴아슴 떠오르고 골짜기 숲으로부터 북더위를 씻어가던 한 줄기 바람결이 내 얼굴을 지나가고…… 아니 그 보다는 나는 소리만 들으면 그 이마 위에서 무섭게 들끓고 있던 여름 햇덩이를 다시 보게 되곤 하니 말이네. 그런데 말이네, 그런데 난 오늘 밤 자네한테서 내 눈썹을 불태울 것 같은 그 뜨거운 햇덩이를 다시 보게 된 것일세. 자네처럼 뜨거운 내 햇덩이를 품은 소리를 만난 일이 없는 것 같단 말일세…… 이제 내가 이토록 자네 소리에 끌리는 까닭을 알겠는가…….”

사내는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도 마치 아직도 그 들끓는 태양벌을 머리 위에 견디고 있는 듯이 얼굴을 심히 고통스럽게 찡그리고 있었다.

→ 현재, 사내는 소리에서 뜨거운 태양을 느끼게 해준 눈 먼 여자에게 소리를 해달라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중략)

“하지만 자네한테 오라비가 있었다 해도 어젯밤 손님이 그때의 오라비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보아하니 자네나 손님이나 양쪽 다 그런 일은 입에도 올리질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네.”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인 천 씨가 아직도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다. 하지만 여자는 아직도 전혀 목소리가 흐트러지는 기색이 없었다.

“오라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벌써 손님을 처음 대했을 때부터 들기 시작했소. 손님이 소리를 찾아다니게 된 내력을 말했을 때는 다시 의심할 여지도 없었고요. 하지만 정말 오라버니 소리가 목에까지 솟아오를 뻔한 것은 북채를 손님께 내어드리고 나서 제 소리가 오라비의 장단을 만났을 때였답니다. 오라비의 솜씨는 옛날의 제 아버 되는 노인의 솜씨 그대로였소.”

“그렇다면 자네 오라비라는 사람도 그뻘 자넬 알아보고 있었을 게 아닌가.”

“알아보았겠지요. 절 알고 여기까지 길을 찾아오신 건지도 모르고요. 모르고 오셨더라도 그 양반 장단을 놀아 나가면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이오.”

“그렇다면 글썸…… 자네를 알아보고도 오라비는 어째서 끝내 오라비라는 소리 한마디 못해 보고 그렇게 허망히 길을 떠나가고 말았단 말인가.”

“그것은 아마 오라비가 또 날 죽이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오.”

“오라비가 자넬 죽이고 싶어 하다니?”

사내의 두 눈이 다시 크게 벌어졌다.

→ 주인 천 씨와 여자와의 대화

주인 천 씨: 사내는 오라비가 누구인지 모른다

여자: 북소리를 듣자마자 사내가 오빠인 것을 확신한다.

“노인네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신 것이 또 한 가지 있었답니다. 당신은 늘 소리를 할 때 오라비 눈에 살기가 도는 것을 보았더라고요. 당신이 소리를 하면 오라비는 이상스럽게 눈빛이 더워지면서 당신을 해치고 싶어 못 견뎌 하더랍니다. 오라비가 싫은 짓을 참아가면서 의붓아버지를 따라다닌 것은 그 불쌍한 노인네가 당신의 어머니를 죽인 거라 작심하고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을 거랍니다. 노인네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서 원수를 갚으라고 오라비 앞에 더욱 힘이 뻗치게 목청을 돋워대곤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오라비는 결국 원수를 갚기는커녕 당신 편에서 먼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을 치고 말았다는 말씀이었지요. 그런데…… 어젯밤엔 저도 소리를 하면서 오라비한테서 그런 살기가 완연하게 느껴져 오더구만요. 오라빈 그걸 무슨 햇덩이 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게 바로 살기였을 게라요. 오라비가 그 햇덩이 때문에 이마가 뜨거울 때 당신은 살기가 일고 있었던 것이오.”

“자네는 그럼 오라비한테서 그런 살기를 느끼면서도 무슨 정성으로 밤새껏 그리 목청을 뽑았던가? 오라비 살기가 부풀어 끝장이라도 나고 싶었던가 말이네.”

“…….”

“그리고 또 자네 오라비란 사람도 그런 살기가 들었다면 어째서 끝내 자네를 해치지 못하고 말도 없이 문을 나갔겠는가 말이네.”

“그야 오라비는 옛날에도 노인을 해치진 못했지요. 노인을 해치고 싶어 했다 뿐, 소리 때문에 외려 당신 쪽에서 몸을 피해 달아난 위인이었다지 않습니까. 오라버닌 제 소리에 살기가 일었을지 모르지만, 제 소리 때문에 또 당신 쪽에서 먼저 몸을 피해가신 것입네다.”

“그걸 자네 오라비도 알았을까. 그 오라비한테도 자네가 이미 오라비를 그토록 알아보고 있는 눈치를 말이네.”

“소리가 어우러져 나가면서 오라버니도 죽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오.”

“…….”

뜸을 주지 않고 물어대던 사내가 마침내 입을 다물었다.

→ 주인 천 씨와 여자와의 대화

여자: 오빠는 자신이 내는 소리에 괴로움을 느껴 동생에게 살의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죽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 <추가 문제>

문항 번호	1	2	3	4
답	②	③	④	①

★ 추가 문제는 해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